



지난달 3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막식에서 (왼쪽 2번째부터)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기부

##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성료

# K-소상공인 저력 다시 빛났다

이틀간 2500명 모여 성과 공유  
유공자 21명 등 정부 포상 진행  
기능경진대회서 기술력 경쟁  
전통·AI 결합한 혁신 현장 눈길  
한성숙 장관 “성장·안전망 강화”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K-소상공인'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났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총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 날 개막식에선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이 돌아갔다.

은탑산업훈장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시공 기법을 소개

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 공헌을 인정받은 공로로 서진종합건축설비 서대로 대표가 수상했다.

또 소공연 연천군지부장을 맡으면서 한탄강큰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연숙 대표는 업종 간 협력과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철갑산업훈장을 받았다.

개막식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틀간 한국육외광고협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주관한 기능경진대회에는 전국의 소상공인 1540여 명이 참가해 광고물 제작, 제빵, 메이크업, 화환, 조리 등 부문별로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매일아침 희

망으로 가게문을 여는 소상공인의 역동적인 오늘이 있기에, 내일의 대한민국은 더욱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또 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윈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정책과 복지의 구조적인 혁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전시장을 둘러본 후 자신의 SNS계정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책을 소개하는 글로벌 상권 전시관, 소공인 특별 전시관, 그리고 상생협력 사례 전시관까지 소상공인 정책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면서 “특히 나전칠기 명장의 전통 수공예 작업, 장인의 손길을 AI로 기록하는 스마트 제조·연구기술, 소상공인의 AI 학습과 디지털 교육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전통이 함께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르노코리아, ‘패밀리 SUV’로 실속 공략

고급리 속 합리 소비층 집중 공략  
코리아세일페스타서 역대급 혜택

고급리 자동차 할부의 부담 확대 등으로 차량 교체 수요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시점 자체를 늦추거나 비용 대비 효익을 면밀히 따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는 구매를 유도하던 시대에서, 구매를 납득시키는 시대로 바뀌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68만65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은 고급리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시장 변화에 맞춰 수요 비중이 높은 패밀리 SUV 중심으로 라인업을 촘촘하게 구성해 실질적인 가성비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력 모델 그랑 Koleos는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과 안정성, 연료 효율 등을 갖춰 출시 1년 만에 5만 대 판매를 넘어섰다. QM6는 준중형 대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LPG 모델이 스테디 셀러로서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

다. 아르카나는 세단급 예산으로 SUV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며,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은 LG에너지솔루션의 NCM 배터리를 채택해 신뢰성을 확보한 순수 전기차다.

이 같은 라인업 기반 위에서, 르노코리아는 2025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0월29~11월16일)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적용했다. 대표적으로 ▲그랑 Koleos 최대 350만원 ▲QM6 최대 490만원 ▲세닉 E-Tech 최대 470만원 ▲아르카나 최대 80만 원 상당 옵션/액세서리 혜택 등 실구매가 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르노코리아의 전략은 단순한 가격 할인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SUV 시장은 가족 단위 수요와 실용성 중심 선택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속에서 르노코리아의 모델 구성은 '동일 예산 안에서 더 큰 활용성'이라는 소비자 트렌드와 정확히 맞물린다.

/양성운 기자 ysw@

## CJ대한통운, 30년간 한국암웨이와 신뢰 동행

1억1000만건 배송, 동반성장 상징  
전국 인프라 기반 맞춤형 솔루션

CJ대한통운과 한국암웨이의 물류협업이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이 배송한 한국암웨이 택배 상품은 누적 1억1000만 건에 달했다. 물류업계에서 이같은 장기계약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는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전국 단위 인프라와 안정적 운영 역량, 맞춤형 물류 솔루션에 더해 양사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이 장기 협력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한국암웨이와 물류협업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30 YEAR SOF TRUST, Together Towards Tomorrow'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1995년 11월 첫 택배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한국암웨이 소비자가

언제든 편리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배송권역을 확장했다.

2000년에는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전주·강릉 지역에 위치한 한국암웨이 '비즈니스&브랜드 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물류를 넘어 제품 판매 및 리테일 운영 영역까지 파트너십의 외연을 넓혔다.

이후로도 CJ대한통운과 한국암웨이는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쇼핑경험을 선사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2004년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하는 '타임택배'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항공운송 기반 제주도 지역 익일배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 300여 개의 택배 거점을 기반으로 익일배송률을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99.7%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부터는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도입하며 한층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송환경도 완성했다.

/김승호 기자

## 세아·동양AK, 항공용 합금 수출 본격화

보잉·에어버스 공급망 진입 추진  
창녕 신공장 건설로 생산 확대  
글로벌 항공소재 수요 급증세

글로벌 항공기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항공소재 기업들도 공급망 외연을 넓히고 있다. 세아항공방산소재와 동양AK코리아가 그 중심에서 민·군 복합 항공소재 생산체계를 고도화하며 보잉·에어버스·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등 글로벌 제작사 공급망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용 알루미늄 합금 기업들은 기존 방산 중심 공급망에서 상업용 항공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항공기 구조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은 고강도와 내식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부가 소재로, 글로벌 항공기 생산량 회복과 함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경남 창녕 대합산단에 연간 770톤 규모의 고강도 알루미늄 신공장을 구축한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 후 하반기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보잉, 엠브라에르, IAI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소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창원공장에서도 군용기와 항공엔진용 고강도 알루미늄



세아항공방산소재의 다양한 크기의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가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다. /세아홀딩스

소재를 양산해왔으며, 이번 창녕 신공장은 늘어나는 항공소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24캐미칼리서치는 세계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시장 규모가 지난 2024년 47억8000만 달러에서 오는 2032년 81억6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성장률은 6.8%에 달한다. 보잉 737 MAX, 에어버스 A320neo 등 연료 효율이 높은 상업용 항공기의 생산이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이고, 각국의 국방비 확대에 따른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맞물리며 항공소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위성·발사체 등 우주산업

성장세가 더해지며 특히 극저온·고강도 특성을 갖춘 '7000계(아연계) 고성능 합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또 다른 선도기업 동양AK는 민항기용 항공소재 상용화를 위해 필수 품질·공정 요건을 갖춰 승인까지 완료한 뒤 납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IAI·보잉 민항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세종 본사 제3주조공장(연산 5만 톤)에서 1000~7000 계열(순수 AI부터 고강도 합금까지)의 항공·방산용 슬래브·빌렛을 생산하며, 특히 2024계(구리계), 7075계(아연계) 고강도 합금을 국산화해 주조, 가공, 출하로 이어지는 일괄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동양AK는 그간 KAI·한화에어로소시에 군용기 및 항공엔진용 소재를 공급하며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전문가들은 항공소재는 인증만 수년이 걸리고 시험·평가 비용도 크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제한되는 구조여서 수익성 방어력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올해 상반기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134억 원(영업이익률 20.3%)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 에스원, AI 기반 안티드론 솔루션 선보여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보안 강화

에스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안티드론 솔루션으로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에스원은 2일 불법 촬영·기밀 유출·시설 침입 등 드론에 의한 보안 위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안티 드론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에스원의 이 솔루션은 ▲'RF 스캐너·레이더'를 활용한 불법 침입 감지와 실시간 추적 ▲'드론 탐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비행 패턴·형체 분석 ▲'주파수 간섭 기술'을 활용한 불법 드론 실시간 무력화 조치 등을 제공한다.

RF 스캐너는 드론과 조종기 간 통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 드론의 위치·속

도·방향을 추적해 관제사 개입 없이도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또 AI 알고리즘이 비행 패턴과 형체를 분석해 비행기나 조류를 실제 드론과 자동으로 구분한다. 고배율 광학 줌을 탑재한 EO(Electro-Optical) 카메라로 수㎞ 떨어진 소형 드론까지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IR(Infrared) 카메라는 모터의 열을 감지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드론 추적이 가능하다.

에스원 솔루션은 현장 출동 없이도 드론을 즉시 무력화할 수도 있다. 주파수 간섭 기술로 드론과 조종기 사이의 통신을 교란해 출발지로 되돌리거나 안전한 지점에 강제 착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